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4 7707 F. 051 744 7708 ~ 9
www.tongsinsa.com



조선통신사

SUMMER 2020 여름호

부산문화재단

(재)부산문화재단 2020-014

조선통신사

JOSEON TONGSINSA JOURNAL · SUMMER 2020 여름호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조선통신사환대도병풍

朝鮮通信使歡待図屏風



<표지 설명> 조선통신사환대도병풍 朝鮮通信使歡迎圖屏風

| 각 쌍 세로 166.6cm, 가로 500cm | 종이에 금박 채색 | 센뉴지泉涌寺 소장 | 교토시 지정문화재
병풍의 오른쪽 쪽으로 조선통신사가 조선 국서를 받들고 에도성江戶城에 오르는 풍경이다.

CONTENTS

조선통신사
인물 탐구

04 조선 피로인(被擄人) 강항(姜沆), 문사 교류의 길을 열다
한태문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선통신사 기록물 소개

14 국서 전명과 닛코 유람
 마치다 카즈토
 전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록유산 일본학술위원회 부위원장

20 이성린의 사로승구도와 대마도
정성일 광주여자대학교 서비스경영학과 교수

연고지 이야기

26 신선의 경지라고 평가되던 아이노시마相島를 찾아서
박화진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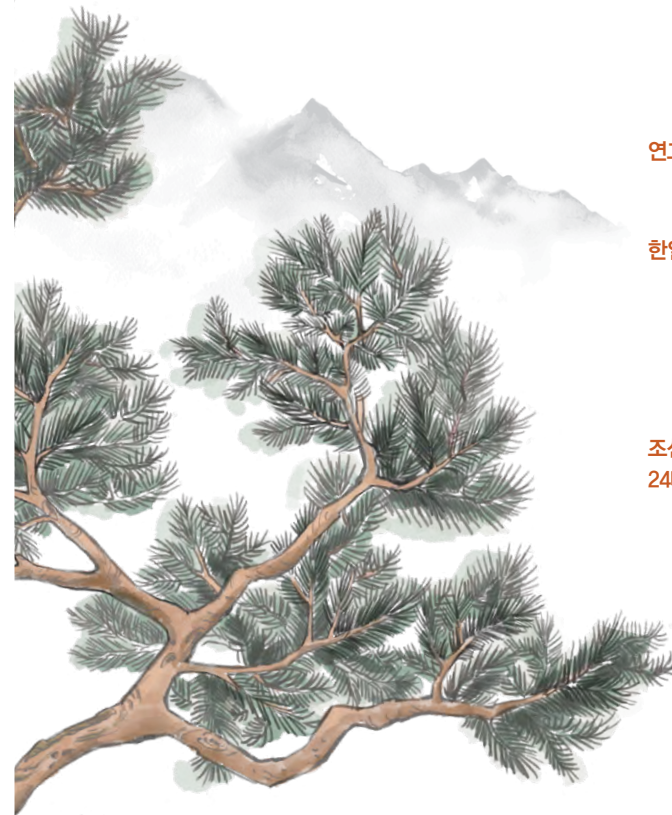
한일 문화 칼럼

32 쌀과 취사도구로 본 한국과 일본의 식문화 교류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

38 마이크로리더 그리고 ‘우리’ 속에 핀 꽃
이장욱 미술 작가

조선통신사
24時

46 2020년 포스트 코로나 특별사업
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팀



조선통신사·SUMMER 2020 여름호

발행일 2020. 6. 30 발행인 강동수

발행처 (재)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744.7707

편집위원 한태문, 박화진, 백태현, 이주영

편집기획 문화유산팀 양주원, 김보미 Tel 051. 631. 0858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Tel 051. 807. 5100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재사용하려면 (재)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조선통신사 저널은 (재)부산문화재단 및 조선통신사문화사업 홈페이지에서 웹진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2020년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습니다.

조선 피로인 被擄人 강항 姜沆, 문사 교류의 길을 열다

朝鮮の被擄人・姜沆(カン・ハン)、
両国における文士交流の道を切り開く



글_한태문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韓泰文 釜山大学 国語国文学科 教授

姜沆(カン・ハン)は通信使の派遣に一度も参加したことはなかったが、通信使による『使行録』に度々登場する人物である。彼は、丁酉再乱(慶長の役)の際、家族と共に日本に連れて行かれた朝鮮の被擄人(ひりょにん)で、2年8ヶ月間日本に抑留された。敵国での厳しい状況の中ではあったが、京都・伏見城において赤松広通と藤原惺窩などに会い、詩文唱和と学問交流を行った。特に、僧侶の藤原惺窩は、姜沆から朝鮮の科举制度をはじめ、様々な制度や朱子学を学び、儒者としての道を進み、近世日本における朱子学の開祖となった。姜沆の帰国後、彼の後輩や後学は通信使の一行として参加し、藤原惺窩の弟子や孫弟子、後裔に会って筆談唱和し、交流を行った。これは、姜沆と藤原惺窩が見せた率直な心の交流が、朝鮮通信使により再現されたのである。



01

통신사 사행록에 반영된 강항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 일본에 갔다가 승려 순수좌 舜首座를 만나 학문을 가르쳤다. 일본 유학의 뿌리가 이로부터 시작되었고, 드디어 그의 도움을 받아 돌아왔다. 『간양록』을 지었는데, 왜국의 사정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였으니 아마도 순수좌에게 들은 것인 듯하다.

계미통신사(1763)에 정사서기 正使書記로 참여했던 성대중이 자신의 저서 『청성잡기 靑城雜記』에 기록한 내용이다. 이 글의 주인공은 정유재란 때 가족과 함께 일본군에 사로잡혀 무려 2년 8개월 동안 일본에 억류되었다가 극적으로 귀국한 강항(1567~1618)이다. 성대중은 강항이 일본에서 만난 승려 순수좌를 유학자로 만들고, 순수좌로부터 견문한 일본의 실정과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간양록』을 지었다고 적고 있다. 세상을 떠난 지 무려 145년이 지났음에도 조선 피로인 강항이 이처럼 일본의 순수좌와 함께 통신사의 사행록에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01 수은 강항 선생 동상(내산서원)

『맹자』를 외우던 천재 소년, 벼슬자리에 오르다

강항은 흔히 서거정과 함께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문장가로 손꼽히는 강희맹의 5대손이다. 그는 1567년 5월 17일 전남 영광靈光 유봉리西峰里에서 아버지 강극검姜克儉과 어머니 영동김씨永同金氏 사이에서 5남 1녀 중 4남으로 태어났다.

강항은 4살 때 큰 형 강해姜澮에게 글을 배웠다. 5살 때는 전라감사가 ‘다리 각脚’자 운을 내자, 바로 ‘다리는 만 리를 가지만 마음이 다리에게 시킨 것 이라네脚到萬里心教脚’라고 응수했을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다. 특히 7살 때는 책장수가 팔려고 가져온 『맹자』를 하룻밤에 다 외워버렸다. 기특하게 여긴 책장수가 『맹자』를 강항에게 선물로 주었지만 그가 받지 않자 책을 정자나무에 걸어놓고 가버렸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후 그 나무를 ‘맹자정孟子亭’으로, 마을 이름도 ‘맹자마을’로 불렀다고 한다. 14세(1580)에 어머니를 여윈 강항은 이후 성혼成渾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16세에 향시鄉試에, 22세에 진사시에 합격한 후 김봉金奉의 딸 진주김씨를 아내로 맞았다. 26세에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군량미와 무기를 모아 의병장 고경명에게 보냈고, 27세

에는 전란 중 전주에서 치른 대과에 합격했다. 그의 벼슬길은 정9품 교서정자校書正字를 시작으로 박사·성균관전직·공조좌랑 등을 거쳐 30세(1596)에 형조좌랑에 이르렀다.

왜적에게 사로잡혀 적국에서 살아가다

강항이 휴가를 얻어 고향에서 농사를 돌보던 1597년 8월, 일본군이 다시 조선을 침략했다. 강항은 호조참판 이광정李光庭의 종사관으로 남원성의 군량조달을 맡았지만, 남원성이 함락되자 고향으로 돌아왔다. 곧 순찰사 종사관 김상준金尙菴과 함께 힘들게 의병을 모집했지만, 그들은 적이 밀려온다는 소식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강항은 가족들과 이순신 장군 아래에서 싸울 것을 결의하며 염산鹽山의 논잠포論岑浦에서 2척의 배를 띄웠다. 하지만 뱃사공이 처자식을 태우려고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뱃머리의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아버지가 탄 배와 헤어지게 되었다. 강항은 아버지를 찾아 다시 논잠포로 향하던 중 적장인 토도 다카도라藤堂高虎의 부하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강항은 곧장 옷을 벗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02 수은 강항 선생 맹자정 기적비
03 논잠포 유적지에 세워진 '수은 강항 선생 설란사적비'(염산동부교회 맞은편)
04 강항이 처음 머물렀던 오즈성

이내 적에게 사로잡혔고, 그 바람에 돌아가신 어머니와 형의 신위神位를 물속에 잃고 만다. 게다가 설사병이 난 8살 조카는 강제로 바다에 던져졌다. 어디 그뿐이라? 30세에 얻은 아들 ‘용龍’과 작은 부인 함평이씨 몸에서 난 딸 ‘애생愛生’이 바로 눈앞에서 파도에 떠밀려 익사하고 말았다. 눈앞에서 자식을 잃은 함평이씨는 음식을 거부하며 통곡하다 마침내 세상을 떠났다.

강항 일행을 태운 배는 무안·순천·안골포를 지나 일본 땅인 쓰시마對馬島·이키노시마壹岐島·시모노세키下關·카미노세키上關를 거쳐 이요주伊豫洲(오늘날 에히메현愛媛縣)의 오즈大津(오늘날 오즈시大洲市)에 도착했다. 적국에서 가족들이 함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어린 조카들이 연이어 병으로 죽고, 5월 25일에 탈출을 시도하다 실패한 후 강항에겐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나마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를 따라 한양을 왔다간 적이 있는 김산金山 숯세키지出石寺 승려 카이케이이快慶와 시문을 주고받는 것으로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었다. 6월에는 오즈大津를 떠나 오사카大坂를 거쳐 교토京都의 후시미성伏見城으로 거처를 옮겼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후시미성 주변에는 조선인 포로들이 많아 덜 외로웠다. 하지만 뼈라든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품고 살던 강항에겐 어디에 머물든 긴장을 풀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05



06

강항,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를 만나 문화교류의 씨를 뿌리다

강항에 대한 소문은 삼시간에 후시미성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1598년 12월, 아카마츠 히로미치赤松廣通(1562~1600)와 순수좌 곧,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1561~1619)가 강항을 찾았다. 타즈노龍野의 성주인 아카마츠 히로미치는 ‘육경六經’을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학문을 좋아한 데다, 부모가 죽자 삼년상을 치러 “일본에 살지만 일본 사람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다.

또 후지와라 세이카는 7세에 타즈노龍野의 케이운지慶雲寺에서 승려가 되고, 13세에 교토의 쇼코쿠지相國寺에서 학승學僧의 길을 걸었던 묘쥬인妙壽院의 고승이었다. 그는 일찍이 경인통신사(1590) 허성許箴을 만난 후 본격적으로 주자학을 배우기 위해 중국 유학길에 올랐다. 하지만 폭풍을 만나 실패하고, 임진왜란까지 겹치자 꿈을 접을 수밖에 없

었다. 바로 그때 조선의 관리이자 유학자인 강항이 운명처럼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강항과 이들 두 사람의 만남은 무려 1년 7개월이나 계속되었다. 아카마츠 히로미치는 강항 3형제에게 ‘육경’을 큰 글씨로 베껴 쓰게 하고, 그 대가로 귀국할 때 노잣돈에 보태라며 은화를 몰래 손에 쥐어 주었다. 또, 후지와라 세이카는 필담筆談을 통해 강항에게서 조선의 과거제를 비롯한 각종 제도와 사례四禮 등을 배우고, 일본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교 서적들을 발간하고자 했다.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아카마츠 히로미치가 돈을 내고 강항 3형제가 주희의 주석을 바탕으로 사서오경을 필사한 뒤, 후지와라 세이카가 일본 훈을 달아 완성한 『사서오경왜훈四書五經倭訓』이다. 일본인을 위해 조선과 일본의 학자가 공동으로 최초의 성리학 교재를 마련한 셈이다.

이후 아카마츠 히로미치는 강항으로부터 배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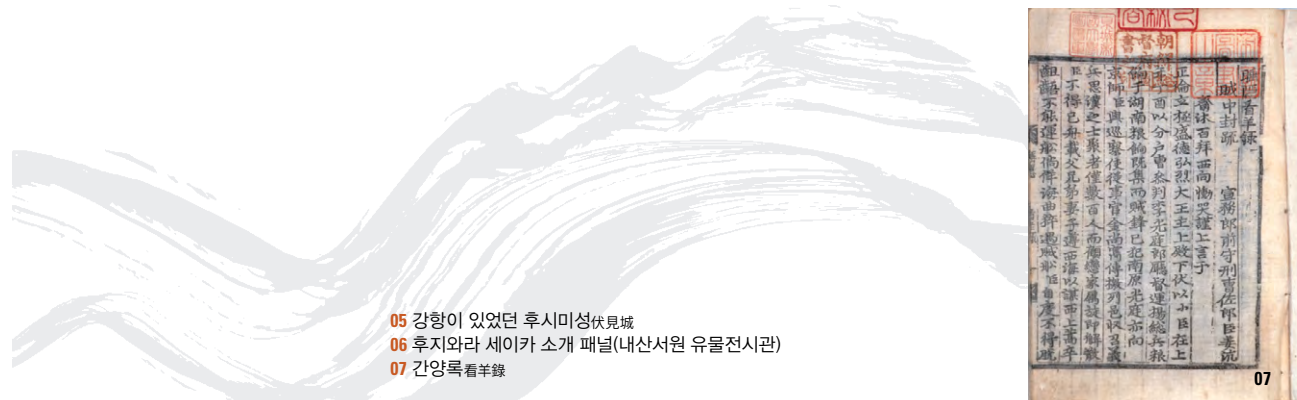
을 토대로 공자 사당을 세운 뒤 조선의 제사 복장을 본떠 갖춰 입고 의례를 익혀나갔다. 후지와라 세이카도 토쿠가와 이에야쓰德川家康가 부른 자리에 유가 선비의 옷을 갖춰 입고 나가 승려 세이쇼 쇼타이西笑承台와 유불논쟁을 벌였다. 이를 통해 유학자로 거듭난 그는, 이후 근세 일본 주자학의 개조開祖로 불리게 되었다.

후지와라 세이카는 제자들의 육성에도 힘써 수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그 제자들은 병자통신사(1636)와 만나 교류를 펼친 호리 쿄우안堀杏庵과 이시카와 조잔石川丈山처럼 이후 조선통신사와 문화교류를 펼치는 주인공으로 성장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후지와라 세이카의 수제자인 하야시 라잔林羅山과 그 후손들은 막부의 대학두大學頭로서 조선통신사가 방일할 때마다 접대역을 맡아 문화교류를 주도하였다. 강항과 후지와라 세이카의 교류 전통이 조선통신사를 통해 그 제자와 후손들에 의해 재현된 것이다. 통신사 사행록에 후지와라 세이카와 함께 강항이 자주 등장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간양록看羊錄』, 피눈물을 흘리며 죄인의 심정으로 기록하다

1600년 2월 9일, 오즈에 있던 토도 다카도라藤堂高虎가 이에야쓰의 부름을 받고 후시미성으로 돌아왔다. 강항은 그에게 “죽이지 않으려면 귀국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편지를 올려 겨우 허락을 받았다. 강항이 모아둔 은전으로 38명이 탈 배 한 척을 구하자, 아카마츠 히로미치는 관문의 검문을 통과할 수 있는 문서를, 후지와라 세이카는 쓰시마對馬島까지 길을 안내할 뱃사공을 마련해주었다. 4월 2일 교토를 떠난 일행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5월 19일, 그토록 그리던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강항의 발길은 곧장 한양으로 향했다. 그동안의 사정을 보고 드리는 것이 신하의 마땅한 도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6월 9일 선조 임금을 뵈자 선조는 강항이 일본에서 있으면서 중



07

- 05 강항이 있었던 후시미성伏見城
- 06 후지와라 세이카 소개 패널(내산서원 유물전시관)
- 07 간양록看羊錄

국인을 통해 임금에게 올린 상소의 내용을 칭찬한 뒤 말 한 필을 내려 귀향길을 도왔다.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뵈 강항은 자신이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의 체험을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에 들어갔다.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의 지리·지세·군제 등을 상세히 담아 비밀리에 임금께 올린 〈적중에서 올리는 상소敵中封疏〉와 귀국할 때 쓰시마에서 남아 있던 조선 포로들의 탈출 및 귀국을 격려하는 내용을 담은 〈포로들에게 알리는 격문告俘人檄〉을 다듬었다.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왕에게 적의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올린 〈승정원에 올리는 글詣承政院啓辭〉과 일본인과의 교류를 통해 확보한 일본의 실정을 담은 〈적중에서 듣고 본 기록敵中聞見錄〉 등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피로인 생활 전반을 시가 섞인 일기로 서술한 〈난리를 겪은 사적涉亂事迹〉 등도 덧붙였다.

강항은 이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고 『건거록巾車錄』이라 이름을 붙였다. ‘건거’는 『한서漢書』의 「퐁이전馮夷傳」에 나오는 말로 ‘죄인이 타는 수레’라는 뜻이다. 이는 관리의 몸으로 자결도 못하고 적에게 사로잡혀 구차한 삶을 이어간 자신을 한껏 낮춘 것이다. 하지만, 수제자 윤순거는 세상에 드문 역경을 겪고서도 오히려 처신이 올발랐던 스승의 글을 고쳐 펴내면서 그 이름을 그대로 쓸 수는 없었다. 다행히 스승이 “죽을 바엔 바다의 양이나 치자꾸나等死須看海上羊”라는 시구를 남겨 그 뜻을 보인 데다, 스승의 벗인 권필 또한 강항을 기린 시에서 “절개는 양을 돌보기 위해 떨어지네節爲看羊落”라고 읊었기에 『간양록』이라 고쳤다. ‘간양看羊’은 한나라 무제 때 흉노에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되었지만, 신하가 되라는 흉노왕의 회유를 거부하고 ‘양을 치는’ 노역을 하다 19년 만에 돌아온 소무蘇武의 충절을 기린 말이다.

강항의 자취를 찾아서

강항의 자취를 찾아 부산에서 승용차로 약 300km, 거의 4시간이 걸려 내산서원에 도착했다. 강항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원의 원래 이름은 ‘용계사龍溪祠’(1635)였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1868)으로 자취를 감추었다가 1974년 복원되면서 ‘내산서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주차장 입구에는 1632년 인조가 배에서 죽은 작은 부인 함평이씨의 절개를 기려 정려문을 내린 것을 기념하는 정렬문旌烈門이, 바로 뒤에는 강항의 신도비神道碑가 세워져 있다.

드넓은 주차장을 들어서자 홍살문을 배경으로 2002년 11월에 세운 강항의 동상이 모습을 드러낸다. 관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왼손에는 책을 펴들고 오른손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인자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이 영락없는 선비의 모습이다. 동상 뒤 ‘유물전시



08 내산서원의 전경



관'에는 강항의 생애를 비롯하여 『강감회요綱鑑會要』, 『운제록雲堤錄』 등의 저서와 후지와라 세이카와의 왕복 서신, 그리고 목판 등이 전시되어 있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수은정睡隱亭'을 지나자 언덕 위에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내산서원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다. 외삼문인 '충의문忠義門'을 들어서니 학문을 연마하던 '내산서원'이다. 다시 내삼문인 '일성문日星門'을 들어서니 바로 강항과 그 제자 윤순거를 모신 사당인 '용계사龍溪祠'다.

잠시 묵념한 뒤 오른쪽 곁문을 통해 산길을 오르다 두 갈래 길에서 왼쪽으로 꺾으니 강항과 두 부인을 모신 묘역이 눈앞에 나타난다. 강항은 부친의 삼년상을 벗자마자 병을 얻어 1618년 5월 6일,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진주김씨는 그 후 30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

무덤 앞에는 두 개의 비석이 있다. 하나는 글씨를 알아보기 힘든 오래된 비석으로 1798년 좌찬성 송환기宋煥箕가 지은 것이고, 강항의 이름 옆에 '증정부인 진주김씨贈貞夫人晉州金氏'만 새겨져 있다. 그런데, 1992년 2월에 옛 비석의 글을 그대로 옮기되 이학용李學庸이 글씨를 쓴 새 비석에는 강항 옆에 진주김씨와 함께 함평이씨도 새겨져 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적국에서 마음 졸이며 나날을 보냈던 그가 오늘은 두 부인과 함께 양지바른 언덕에서 나란히 햇볕을 쬔다.



09 강항과 두 부인의 묘소
10 오즈시민회관 앞 강항 현창비
11 2019년에 개최된 수은 강항 선생 위령제

한일 양국에서 펼쳐지는 강항 선양사업

오늘날 강항을 기리는 선양사업은 한일 양국에서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내산서원보존회'와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되어 각종 기념비 건립과 함께 '수은강항 로드'를 개발하여 탐방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강항이 처음 머물렀던 일본 에히메현 오즈시에서도 1990년 3월 11일, 오즈시민회관 앞에 자연석에 글씨를 새긴 '홍유 강항 현창비鴻儒姜沆顯彰碑'를 세웠다. 한 걸음 뒤돌아 본 안내판에는 '일본 주자학의 아버지 유학자 강항'이란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한국의 영광군과 일본의 오즈시가 '강항'을 매개로 자매결연 도시가 된 2002년 7월 14일 이후에는 상호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 2019년 6월 8일에는 오즈시시민회관에서 양측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강항 서거 401주년을 기념하는 '수은 강항선생 위령제'가 열리기도 했다. 이때 위령제는 강항이 오즈에 있을 때 시문을 주고받았던 진산金山 숯세키지出石寺의 주지스님이 주례를 맡아 그 의미가 남달랐다.

비록 원하지 않았던 일본에서의 생활이었지만 강항은 일본인과 교류하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문득, 그에게서 원수의 나라에 사신가는 것을 원통해 하면서도 정작 일본에서는 문화교류를 더욱 활발히 펼쳤던 조선통신사의 모습이 살짝 겹쳐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국서 전명과 닛코 유람

国書伝命と日光遊覧



글 마치다 카즈토 町田 一仁

전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록유산 일본학술위원회 부위원장
元朝鮮通信使ユネスコ記憶遺産 日本学術委員会 副委員長



「朝鮮通信使に関する記録」の日本所在記録のなかから、朝鮮通信使の使命である徳川将軍への朝鮮国書伝命の様子を画いた「朝鮮通信使歓待図屏風」、ならびに全使行中3回実施された日光遊覧の様子を画いた「東照社縁起(仮名本) 第四巻」を紹介する。これらは当時の日本を代表する絵師の作品であり、朝鮮通信使の絵画記録として大変優れている。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일본 측 등록을 신청한 NPO 법인 '조선통신사연지(緣地)연락 협의회'는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의 일본 소재 기록 48건, 209점을 소개한 도록을 근 일 간행하기로 했다. 많은 독자들이 이 도록을 참고로 조선통신사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고에서는 도록들 중에서 조선통신사의 임무였던 국서 전명식의 풍경을 살펴볼 수 있는 '조선통신사환대도병풍'과 3회에 걸쳐 실시된 조선통신사의 닛코 유람을 그린 『도쇼샤연기(東照社縁起:도쇼샤 창건 유래)(가나본) 두루마리 그림 제4』를 소개하고자 한다. '조선통신사환대도병풍'은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중에서 '여정의 기록'으로 분류된 조선통신사를 주제로 한 감상화이다. 또한 『도쇼샤연기(東照社縁起:도쇼샤 창건 유래)(가나본) 두루마리 그림 제4』는 '문화교류 기록'으로 분류된 도쿠가와 쇼군 가문과 조선통신사의 교류를 입증하고 있으며, 당대 일본을 대표하는 화가의 작품이기도 하다.

1. 조선통신사환대도병풍 8폭 1쌍

이 그림은 병풍 오른쪽 폭에는 조선통신사가 조선 국서를 받들고 에도성江戸城에 오르는 풍경을, 왼쪽 폭에는 에도성 오히로마大広間에서 조선 국서를 전달하는 풍경을 그렸다. 조선통신사를 소재로 한 감상화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의 하나이다.

화가는 스르가다이 가노駿河台狩野 가문의 시조가 된 가노 마스노부狩野益信다. 금빛 구름과 금빛 안개로 나뉘어진 화려한 분위기의 각 장면에 조선통신사, 막부, 각료, 다이묘, 통신사를 구경 나온 에도 사람들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우선 병풍 오른쪽 폭에 있는 조선통신사의 에도성 입성 행렬을 살펴보자. 통신사의 에도성 입성 행렬은 일본 여정 중 최고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다. 막부가 이날을 휴일로 정함으로써 에도와 근교에서

모인 십수만 명의 사람들이 통신사를 구경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오른쪽 하단 풍경은 행렬을 정비하고 위엄 있게 에도거리를 지나며 에도성으로 입성하는 통신사 이외에, 덧문을 치우고 가게 앞에 양탄자 천 등으로 꾸며 견학하는 상인들, 모기장 안에서 구경하는 여인, 골목에 예의 바르게 앉아 견학하는 서민, 경비를 맡은 관리 등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상단 풍경은 악대 등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도키와바시常盤橋를 건너 입성하여 오테몬大手門(성 정문)에 이른 행렬 선두 부분으로 추측된다. 가장 앞에 섰던 사람은 이미 말에서 내려 깃발을 내리고 있다.

『쇼군 일대의 성대한 의식』인 조선통신사의 에도성 입성 행렬 풍경을 전하는 훌륭한 작품이다.



01 조선통신사환대도병풍 8폭 1쌍
크기: 각 쌍 세로 166.6cm, 가로 500cm
소재: 센뉴지泉涌寺

재질: 종이에 금박 채색
지정: 교토시 지정문화재

병풍 오른쪽

01



병풍 왼쪽

병풍 왼쪽 폭은 에도성 혼마루 오히로마에서 열린 국서 전명식 풍경이다.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제7전扇 상단에 있는 방, 발이 내려져 있는 안쪽 높은 자리에 도쿠가와 제4대 쇼군 이에쓰나家綱가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붉은 옷칠 상자에 놓인 조선 국서는 그 옆에 두어졌다. 쇼군 앞에는 쇼군 가문의 어삼가御三家와 삼사가 앉았으며 중앙에 엎드린 사람은 쓰시마 번주 소요시나리宗義成이다. 삼사의 뒤쪽에 위치한 방에는 통신사의 당상역관(상상관上上官)이나 상통사上通事 등이, 막부 각료와 다이묘들이 줄지어 앉아 있다. 그 앞 다다미가 깔린 복도에는 상관, 뒷마루에는 차관과 소동이 앉아 있으며 중관中官은 중간 마당에 서 있다. 알현에 참석하지 않는 하관은 혼마루 바깥 정원에서 편안히 쉬고 있다. 유머가 가득한 표정과 제스처를 한 하관을 묘사함으로써 매력적인 작품으로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이 병풍은 도쿠가와 2대 쇼군 히데타다의 딸로 후일 고미즈노 천황의 황후가 된 도후쿠몬인東福門院(마사코)의 유품으로 전한다. 소장하고 있는 센뉴지는 교토시 히가시야마 구에 위치하며 황실과 인연이 있는 유



02

서 깊은 사원이다. 이곳에는 고미즈노 천황에서부터 고묘孝明 천황에 이르는 에도시대(17~19세기) 역대 천황과 황후의 능이 조성되어 센뉴지가 모시고 있다. 도후쿠몬인도 여기에 모셔져 있으며 이러한 관계로 인해 이 그림이 센뉴지에 봉납된 것으로 추측된다.

2. 도쇼샤연기(東照社縁起:도쇼사 창건 유래)(가나본)

두루마리 그림 제4 권

『도쇼샤연기(가나본)』는 도쿠가와 3대 쇼군 이에미쓰의 명으로 제작되었으며 1640년에 완성되어 도쇼구東照宮에 봉납되었다. 총 5개 두루마리 그림으로 되어 있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치적과 도쇼구가 있는 닛코산의 연기(縁起:창건 유래) 등을 가나(일본어)로 기록한 고토바가키詞書(설명문)와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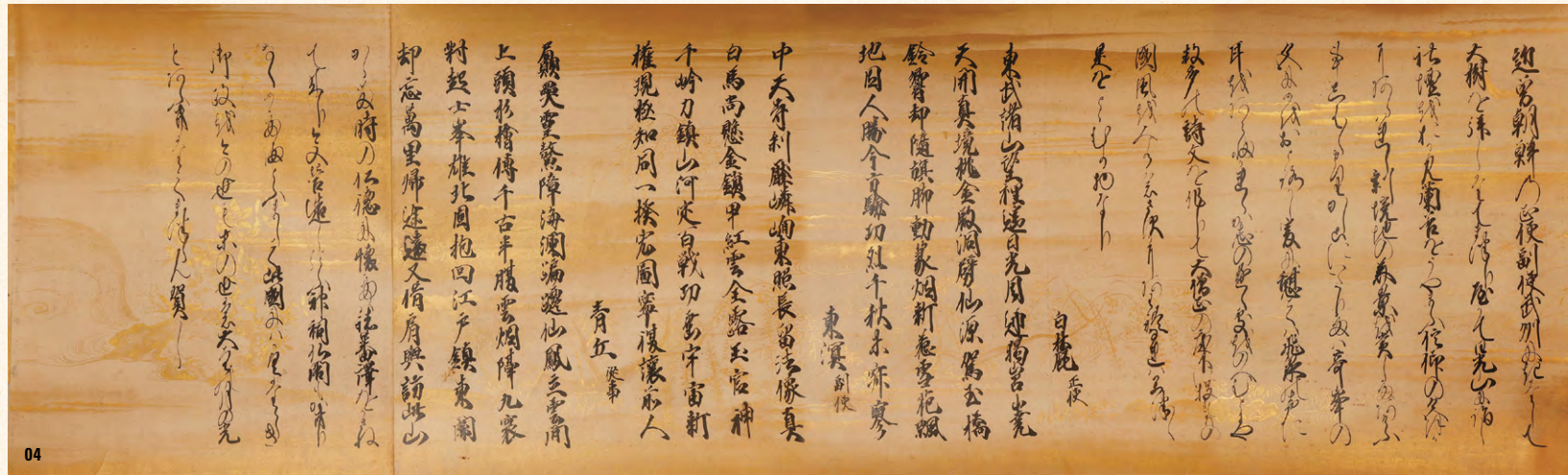
고토바가키는 고미즈노 천황, 천황, 귀족 가문이 직접 집필했으며, 그림은 에도시대 초기 대표적인 화가로서 막부 어용 화가로 활동했던 가노 단유狩野探幽가 그렸다.

02 센뉴지 경내

03 도쇼샤연기(東照社縁起:도쇼사 창건 유래)(가나본) 두루마리 그림 제4~1권
길이: 세로 33cm, 가로 1,636cm
소재: 종이에 착색, 묵서
소장: 도쇼구東照宮
지정: 국가중요문화재



03



04 도쇼사연기(東照社縁起:도쇼사 창건 유래)(가나본) 두루마리 그림 제4-1권
05 닛코의 오토리아(大鳥居)

총 다섯 개 두루마리 그림 중 네 번째 두루마리에는 도쿠가와 이에미쓰의 닛코 참배, 1636년에 일본을 찾은 조선통신사의 닛코 유람 풍경이 묘사되어 있다.

조선통신사의 닛코 유람은 이때가 처음이었고, 정사 임광은 일본 방문 이후 갑작스럽게 닛코 유람에 대한 제안을 받아 당황하기는 했으나 양국의 관계 안정화를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통신사 일행은 엄동설한인 12월 18일에 에도를 출발해 가스카베春日部, 오야마小山, 우쓰노미야宇都宮, 이마이치今市를 거쳐 12월 22일에 닛코를 유람했다. 에도로 돌아온 것은 12월 25일이었다.

네 번째 두루마리의 조선통신사 장면은 서두에 통신사가 닛코를 유람하는 풍경, 삼사(조선통신사의 정사·부사·종사관)의 닛코를 노래한 시가 고토바가키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어서 도쇼구를 방문하는 통신사를 묘사하고 있다. 그림은 「도쇼대권현(東照大権現)」(도쿠가와 이에야스)이라는 현판이 걸린 오토리아(大鳥居)를 지나가는 형명기(形名旗)를 선두로 통신사 행렬을 삼사 부분까지 그렸고, 그 오른쪽에는 신기한 듯이 행렬을 구경하는 신



사 사람들과 남녀노소 참배자들이 배치되어 있다.

조선통신사의 닛코 유람은 간에이(寛永 20년(1643)과 메이레키(明暦 1년(1655)에도 거행되어 총 12회 통신사행 중 3회가 시행되었다.

도쇼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신으로 모신 신사이며 도쿠가와 이에미쓰가 건축과 정비에 힘을 쏟았다. 도쿠가와 이에미쓰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성사된 조선통신사의 닛코 유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모신 도쇼구의 격조를 높이는 데 크게 공헌했다.

도쇼구에는 『도쇼사연기(縁起(가나본))』 외에 한문체로 된 기록도 있으며 이 역시 도쿠가와 쇼군 가문과 조선통신사의 교류를 밝히는 자료로서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의 '문화교류 기록'으로 들 수 있다. 한자로 쓰인 책은 모두 세 권으로 되어 있으며 도쇼사 진좌(鎮座)의 근본 연기(縁起)가 기록되어 있다. 상권은 1636년, 중권과 하권은 1640년에 가나본과 더불어 도쇼구에 봉납되었다. 이 중 중권에는 1636년에 일본을 찾은 조선통신사가 닛코를 유람할 때 만든 시가 기록되어 있다.

이성린의 사로승구도 槎路勝區圖와 대마도

구사바 하이센의 조선 소나무 그림과 비교

李聖麟 (イ・ソンリン) の「槎路勝區図」と対馬
草場佩川による朝鮮の松の絵の比較



글_ 정성일 광주여자대학교 서비스경영학과 교수
鄭成一 光州女子大学 サービス経営学科 教授

一岐島風本浦

01



對馬州 西山寺

21

01 이성린의 사로승구도 중
〈對馬州 西山寺〉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소장품 번호 덕수 2464)

이성린의 사로승구도,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2017년 10월 31일, 조선통신사 기록물(17~19세기 한일 간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일본에서는 세계기억유산으로 부름)에 등재되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333점을 등재했다(한국 63건 124점, 일본 48건 209점). 이 글에서 소개하려는 것은 한국 측 여정 기록(38건 67점) 중 36번째에 해당한다. K.II-36이라는 분류 기호가 붙은 그림이 그것이다.

이 그림은 사로승구도 槎路勝區圖 또는 사로승구도권 槎路勝區圖卷으로 불린다. 사槎가 배를 뜻하므로 사로는 ‘배길, 통신사가 지나간 길’을 말한다. 승勝은 (경치가) 빼어나다는 뜻이니 승구勝區는 ‘경치 좋은 곳, 절경絶景’ 정도로 풀이된다. 권卷이 붙은 것은 현재 이 그림이 두루마리



釜山から江戸まで、通信使一行の旅路を30
図におさめた「槎路勝區図」は、1748年に李
聖麟(1718-1777)が手掛けた作品である。中
でも「對馬州西山寺」というタイトルの一枚の
絵は、とくに注目に値する。港に沿って視線
を追っていくと、画面の中央の山麓にある建
物が目を引く。屋根の形が他の建物とは異な
り、真ん中がとがっているのである。そこが
西山寺ではなかろうか。
この絵を、1811年に制作された草場佩川の

絵と比較してみると、興味深い点が観察され
る。草場佩川は西山寺のすぐ隣に一本の松
の木を描き、「朝鮮の松は5葉で、大きく育っ
た」という説明を記している。つまり、この松
は朝鮮から対馬へ渡った「朝鮮五葉松」だど
いうことになる。1748年制作の李聖麟(イ・ソ
ンリン)の「槎路勝區図」に見える西山寺の
絵と、1811年制作の草場佩川の西山寺に描
かれた松の木の絵の対比が、2百年前に行わ
れた通信使による韓日の交流を物語る。

형태로 보존되어 있음을 나타낸다(가로 70.3cm, 세로 35.2cm). 부산에서 에도江戸(지금의 도쿄)에 이르는 통신사의 여정이 30폭의 그림에 담겨 있었다. 그것을 나중에 15폭씩 이어 붙여 두 개의 횡권橫卷으로 만든 것이 현재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그림의 어디에도 누가 언제 그렸다고 분명하게 기록해 둔 것이 없어서 작자와 연대를 알 수 없었다. 영조 24년(1748) 사행 때의 통신사 일기 등과 대조하여 분석한 이원식李元植의 논문이 1984년에 발표되면서부터 이 그림을 1748년 무진 사행에 참가한 이성린李聖麟(1718-1777)의 작품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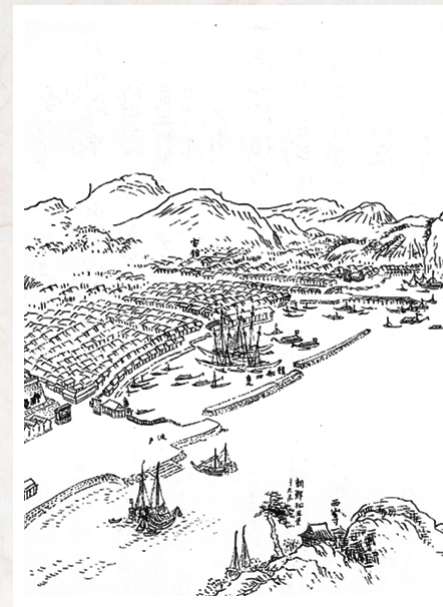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사로승구도 중 <대마주 서산사對馬州 西山寺>

사로승구도槎路勝區圖의 소장 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그림의 원판 이미지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그림을 주제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는 권혜은이 쓴 소장품 해설도 도움을 준다.

필자는 사로승구도 30폭 중에서 <대마주 서산사對馬州 西山寺>란 제목이 붙은 그림 한 폭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마주對馬州는 한국에서 대마도對馬島라 부르는 섬을 가리킨다. 현재 행정 구역으로는 일본 나가사키현長崎縣 쓰시마시對馬市에 해당한다. 지금도 대마도(쓰시마)에 현존하는 서산사西山寺(세이잔지)라는 절을 이성린이 화폭에 담아 기록으로 남겼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부중府中(후츄)으로도 불렸던 지금의 이즈하라嚴原의 항구 주변 모습이 마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는 듯 꽤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항구를 따라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화면 중앙의 산 밑에 있는 건물에 시선이 멈춘다. 지붕의 형태가 다른 건물과 달리 가운데가 뿔뿔하게 솟아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곳이 서산사가 아닐까?

건물을 에워싸고 있는 초록빛 나무 사이로 화초가 분홍색을 드러내고 있다. 중앙의 산등성이에도 붉은 꽃이 피었다. 통신사 일행이 대마도의 부중(이즈하라)에 닿은 것이 1748년 2월 24일(양력 3월 22일)이었으니, 이성린은 봄꽃이 만개한 서산사 주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그림을 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02



03

구사바 하이센草場珮川이 그린 서산사 주변과 조선 소나무

이 글에서는 이성린의 서산사 그림과 비교해 보기 위해 일본인이 남긴 다른 그림을 더 소개하고자 한다. 시기는 이성린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보다 63년이 더 지난 1811년이다. 이때는 사행의 종착지가 에도江戸에서 대마도(쓰시마)로 바뀌었다(易地通信).

이 그림의 작자인 구사바 하이센草場珮川은 일본 사가번佐賀藩의 번교藩校인 고도칸弘道館의 교수教授를 지낸 인물이다. 그의 스승인 고가 세리古賀精里가 막부의 명령을 받고 1811년 대마도로 건너갈 때 함께 따라갔다. 구사바 하이센이 그때 보고 들은 것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쓰시마일기津島日記』이다.

구사바 하이센은 대마도 후츄(지금의 쓰시마시 이즈하라) 항구의 전경을 그림으로 남긴 바 있다(府中湊圖). 그림의 아래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서산사西山寺라는 세 글자가 보인다. 이성린의 <그림 1>이 서산사의 건너편에서 서산사를 바라보는 형식이라면, 구사바 하이센이 그린 <그림 2>는 이와 반대로 서산사 쪽에서 통신사가 머물렀던 곳을 바라보고

02 구사바 하이센이 그린 대마도 서산사 앞의 조선 소나무
출처: 草場珮川, 「府中湊圖」,
『影印本 津島日記』上(西日本文
化協會, 1978), 15B-16A쪽.

03 구사바 하이센이 대마도에서
가져간 조선 솔방울
출처: 草場珮川, 「松篁寫真」,
『影印本 津島日記』上(西日本文
化協會, 1978), 28B쪽 貼紙.

있는 구도이다. 그림의 중앙 위쪽에 객관客館이라 쓴 두 글자, 그리고 아래 오른쪽의 서산사西山寺라는 세 글자가 관전 포인트이다.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서산사와 함께 그려진 조선 소나무이다. 구사바 하이센은 서산사 바로 옆에 소나무 한 그루를 그려 놓고, 그곳에 “조선 소나무가 오엽이며 크게 자랐다朝鮮松五葉ニテ大木”고 설명을 달았다. 이것을 보면 이 소나무가 조선에서 대마도(쓰시마)로 건너간 솔방울에서 싹이 나서 자란 (조선) 오엽송五葉松이 분명하다.

구사바 하이센이 대마도에서 가져간 조선 솔방울

구사바 하이센의 『쓰시마일기津島日記』 상권 (1811년) 5월 10일 기록을 펼쳐 보면 〈그림 3〉의 솔방울이 그려져 있다. 그림에는 설명이 붙어 있다.

“솔방울은 (일본어로) ‘가사’인데, 크기가 그림과 같다.”

榧 カサ 大サ如圖

“열매(씨앗)는 비늘처럼 생긴 껍질 사이에 있으며,
크기는 역시 이와 같음.”

實ハ鱗殻ノ間ニアリ大サ亦如此然リ

이어서 그는 자신도 솔방울 한 개를 받아갔다고 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다.

“나도 솔방울 한 개를 가지고 돌아왔음.”

余一榧顆ヲ齎歸リ

“종자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아무개 집에서 싹이 한 그루 나왔다.”

種子ヲ人々ニ頒チタルニ某ノ家ニ一株萌出ス

구사바 하이센이 1811년 대마도(쓰시마)에서 돌아갈 때 조선 솔방울 1개를 가져갔던 모양이다. 사가번佐賀藩으로 복귀한 그는 그 씨앗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했다. 그 가운데 조선 소나무 씨앗이 일본 땅에서 싹을 틔운 경우도 있었다고 적혀 있다.

구사바 하이센의 손에 들어간 조선 솔방울은 통신사 일행이 조선에서 대마도(쓰시마)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1748년 이성린의 사로승구도에 보이는 서산사 그림과 1811년 구사바 하이센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서산사와 조선 소나무 그림이 2백 년 전 통신사를 통한 한일 간 교류의 흔적을 잘 말해 준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嵯路勝區圖(소장품 번호 덕수 2464).

草場珮川, 『津島日記』 上(『影印本 津島日記』 上, 西日本文化協會, 1978).

권혜은, 「조선후기 《사로승구도권》의 작자와 화풍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60, 한국미술사학회, 2008.

이원식, 『조선통신사』, 민음사, 1991.

정성일, 「외교기록에 대하여」,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UNESCO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한일문화교류기금, 경인문화사), 2018.

정성일, 「통신사를 통해 본 물질 교류-신미 통신사(1811년)의 예물 교환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36,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8.

한일문화교류기금,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UNESCO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경인문화사, 2018.

홍선표,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통신사 기록물의 조선화」,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UNESCO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한일문화교류기금, 경인문화사), 2018.

『(2017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도록)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17세기~19세기 한일 간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한국판)』, (재)부산문화재단, 2018.

신선의 경지라고 평가되던 아이노시마相島를 찾아서

「神仙境」と称えられた相島を訪ねて



글 박화진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朴花珍 釜慶大學 史學科 教授



日本における朝鮮通信使一行の三つ目の経由地・相島について、申維翰(シン・ユハン)は自らの著書の中で、「神仙境だ。新築した館は千間に近く、帳御諸物すべて華美である」と褒めたたえた。52万石の福岡藩主・黒田は、相島を訪れる朝鮮通信使を接待するため、客館の建築をはじめ、食費・人件費・埠頭の建設などに莫大な費用を払った。「第7次朝鮮通信使」(1682年)のための客館建造の際には、3,500人が動員され、使われた畳は931枚に上ったといわれている。さらに、数百隻の船で朝鮮通信使を迎えた関連記録(「福岡藩朝鮮通信使記録-福岡県立図書館所蔵-」)は、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に登録されている。

조선통신사의 아이노시마 체재

조선통신사의 일본 내 세 번째 경유지 아이노시마相島(또는 藍島)는 대한해협(현해탄)상의 마지막 기항지로서, 이곳을 지나면 일본 본토 땅 '시모노세키下関 또는 아카마세키赤間関'에 상륙했다. 두 번째 경유지 이키 섬에서부터 아이노시마까지의 사이에는 피난할 섬이 없어 항상 조난과 난항의 위험에 처했는데, 강풍이나 역풍이 불면 대한해협의 거센 파도 때문에 선박이 전복되거나 표류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았다. 실제로 기해년(1719년) 조선통신사행이 이키 섬에서 바람을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폭풍우로 인하여 통신사 선박을 마중 나왔던 후쿠오카번 선박 4척이 난파 당하고 번사 및 선원 등 총 61명이 익사하는 대형 조난 사고가 발생했다. 조선통신사의 아이노시마 체재 일수를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9일 이상 체재가 5차례나 보이며 심지어 제11회 조선통신사행(1763년)은 아이노시마에서 23일 이상의 장기체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8회(1711년) 조선통신사의 일본 여정 내 체재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이 1일 내지 2일인데 반해, 쓰시마(34일)·이키 섬(9일)·아이노시마(9일)·오사카(12일)·에도(31일)의 다섯 곳이 장기체재를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외교상의 준비과정이 포함된 쓰시마·오사카·에도를 제외한다면, 이키 섬과 아이노시마의 장기체재는 대한해협에 위치한 외딴 섬으로서 날씨·풍향 등 해양환경에 많은 제약을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01 「아이노시마도藍島圖(1748년, 이와쿠니 쇼코칸岩国徴古館 소장)」
출처: 조선통신사 문화사업추진위원회, 『마음의 교류 조선통신사』, p.51.

<표 1> 조선 후기 통신사행의 아이노시마 체재 일수

1607	1차	체재 일수(1) 3.22 미시 말 : 아이노시마 도착(350리) 3.23 묘시 : 출발, 아카마세키 도착(320리)	통신사행록(저자) 海槎錄(慶運)
1617	2차	체재 일수(1) 8.3 신시 : 아이노시마 도착 8.4 진시 초 : 아이노시마 출발	통신사행록(저자) 扶桑錄(이경직)
1624	3차	체재 일수(9) 10.24 황혼 무렵 : 아이노시마 도착 11.2 아침 : 아이노시마 출발	통신사행록(저자) 東槎錄(강홍중)
1636	4차	체재 일수(2) 10.27 신시 : 아이노시마 도착 10.29 진시 : 아이노시마 출발	통신사행록(저자) 丙子日本日記(黃床)
1643	5차	체재 일수(1) 5.18 포시 : 아이노시마 도착 5.19 아침 : 아이노시마 출발	통신사행록(저자) 東槎錄(趙綱), 海槎錄(申濡), 癸未東槎日記(미상)
1655	6차	체재 일수(9) 7.26 미시 : 아이노시마 도착 8.4 묘시 : 아이노시마 출발	통신사행록(저자) 扶桑錄(南龍翼)
1682	7차	체재 일수(1) 7.9 유시 : 아이노시마 도착 7.10 아침 : 출발 밤중 : 아카마세키 도착	통신사행록(저자) 東槎錄(洪禹載), 東槎日錄(金指南)
1711	8차	체재 일수(9) 8.17 아이노시마 도착 8.26 인시 초 : 출발	통신사행록(저자) 東槎日記(任守幹)
1719	9차	체재 일수(9) 8.1 삼경 : 아이노시마 도착 8.10 이른 아침 : 아이노시마 출발	통신사행록(저자) 海遊錄(申維翰), 海槎日記(洪致中)
1748	10차	체재 일수(3) 4.2 밤중 : 아이노시마 도착 4.5 사시 경(오전 10시) : 출발	통신사행록(저자) 奉事日本時見聞錄(曹命采)
1763	11차	체재 일수(23) 12.3 삼경 : 아이노시마 도착 12.26 진시 : 출발(선박 내 체재)	통신사행록(저자) 海槎日記(趙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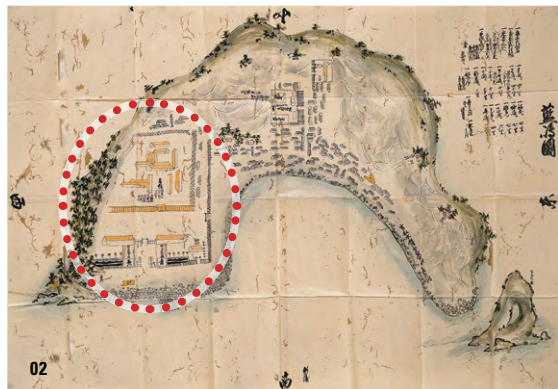
해유록, 해사일기 속의 아이노시마

52만 석 후쿠오카번 영주 구로다黒田는 아이노시마에 오는 조선통신사 접대를 위해 객관 건축을 비롯해 식비·인건비·부두 건설비 등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으며, 제7차 조선통신사행(1682년)의 객관 건축 시에는 3,500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대단한 혼잡을 이루었고, 이때 반입된 다다미가 931장이나 되었다고 한다. 또한 수백 척의 선박으로 조선통신사를 영접했는데, 그 화려함이 극치를 이루었음을 제9차 조선통신사행(1719년) 제술관 신유한의 사행록(『해유록』)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밤이 되자 각 배에 등불 4~5개씩을 켜므로 수천만 점이나 되는 등불이 큰 바다 가운데 총총 늘어서게 되어 먼 데나 가까운 데의 경치가 찬란하게 모두 비치었다. 마치 광릉廣陵 4월 초파일 관등놀이도 이에 비하면 구슬을 희롱하는 사람의 소소한 장난에 불과할 것이다. 삼경三更(밤 11시~새벽 1시)에 남도藍島에 닿았다.”(『해유록』, 1719. 8. 1)

나아가 신유한은 아이노시마 풍경을 보고 ‘신선의 경지’라고 묘사하고 있다.

“남도는 축전주의 소속인데, 위쪽은 푸른 산이 삼면으로 막고 있어 반달과 같고 가운데는 평야로 되어 있어 민가와 농토가 바다를 내려다보게 되어 있으며 바다 밖에는 먼 산이 백 리 가량 둘러싸 둥근 거울과 같은 편편한 호수가 되어 있는데 푸나무 숲과 구름 안개가 모두 시원스럽고 밝으며 그윽하고 청초하여 보는 사람이 바로 황홀하여져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으니, 배가 항해 온 이후 처음 보는 신선의 경지이다. 새로 지은 사관이 거의 천 칸이나 되는데 장막이나 비품이 모두 화려하였으며, 날마다 공급하는 음식도 일기도에 비하면 또 배나 하였다.”(『해유록』, 1719. 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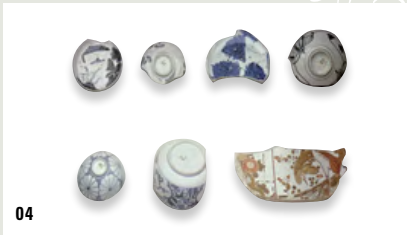
02 아이노시마 조선통신사 객관의 모습

한편 23일간이나 아이노시마에 머물러야 했던 제11회 조선통신사 정사 조엄은 객관의 화려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관사의 널찍함은 일기 섬의 근 천 칸 새로 만든 것보다 나았으니 장려하다고 할 만하다. …… 저녁에 종사관과 더불어 관우館宇의 각 방을 구경하였는데 방과 벽이 곱치고 곱치어서 문으로 나오는 길을 분별할 수 없음이 마치 벌집의 구멍과도 같으니 교묘하고도 교묘하다.”(『해사일기』, 1763. 12. 19)

아이노시마 객관의 모습

아이노시마의 조선통신사 객관은 동서 65칸·남북 70칸 부지에 총 24채의 건물과 경비를 위한 번소番所 6개가 신축되고, 비단으로 만든 등룽 117개가 비치되었으며, 통신사에게 물을 공급할 우물 등이 새롭게 여섯 곳이 더 준비되었다. 객관 구조는 정사 방이 4칸間에 13칸, 부사 방이 1칸 반에 12칸, 종사관 방이 1칸 반에 11칸으로 각각 복도·욕실·변소가 마련되었고 정원도 있었다. 상사관의 방은 3칸에 4칸 반, 상판사·학사·의사들의 방은 8칸 반에 2칸, 상판들의 방은 각각 2칸 반에 20칸·2칸 반에 18칸·2칸 반에 8칸의 규모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림 2>의 점선 부분이다. 현재 조선통신사 객관은 남아있지 않으며 채소밭으로 변모해 유적지임을 알리는 비석과 안내판이 세워져 있을 뿐이다.<그림 3>·<그림 4> 제11차(1763년) 조선통신사 접대를 위한 「후쿠오카번 조선통신사 기록(후쿠오카 현립도서관 소장)」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그림5>



- 03 아이노시마 객관 유적지
출처: 부산문화재단, 『사진으로 본 조선통신사』, p. 41, 2011.
- 04 아이노시마 조선통신사 객관 유적지 출토 자기
출처: 조선통신사 문화사업추진위원회, 『마음의 교류 조선통신사』, p. 52.
- 05 「후쿠오카번 조선통신사 기록(후쿠오카 현립도서관 소장)」
출처: 조선통신사 문화사업추진위원회, 『마음의 교류 조선통신사』, p. 54.

일찍이 신선의 경지로 조선통신사의 찬사를 모았던 아이노시마 탐방은 한일교류의 역사적 향기와 아름다운 동해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아이노시마는 둘레가 약 8km, 거주 인구 약 280명(2019년 통계)인 대한해협상의 작은 외딴 섬이다. 행정명은 후쿠오카현 진구마치福岡県新宮町이며, 곳곳에 조선통신사 관련 유적지가 남아있는 역사적 유래가 깊은 섬이다. 또한 어업을 주업으로 삼는 낚시의 명소이자 세계 6대 고양이 명소猫の島로도 유명하다.

아이노시마에 가는 방법은 후쿠오카 시내에서 전차(JR 또는 니시테쓰선西鐵線)를 이용해 훗코다이마에역福工大前駅 또는 니시테쓰진구역西鐵新宮駅에서 하차한 다음, 커뮤니티 버스(마린쿠스 아이란線)로 10분 만에 진구항新宮港 도선장에 도착한다. 진구항과 아이노시마를 왕래하는 연락선 ‘진구新宮’는 약 17분(편도 요금 460円) 정도 걸리는데, 하루에 5~6회(하계-6회, 동계-5회) 운행되고 있다. 다만 배선 시간 간격이 크기 때문에 탑승 가능한 시간을 미리 조사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아름다운 동해를 바라보며 걷는 아이노시마 주유 하이킹 코스(5km)도 강추한다.

쌀과 취사도구로 본 한국과 일본의 식문화 교류

米と炊事道具から見た韓国と日本の食文化交流



글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
朴相沄 味コラムニスト



稲作の文明圏では、表皮をむいた粒状をそのまま加熱して食べる「粒食」が発達した。世界には10万種類以上の米の品種があるが、形や粘土によって二つに大別できる。粒の長く粘り気が少ない「インディカ米」と、粒の短く粘り気の多い「ジャポニカ米」。ジャポニカ米は韓国、日本、台湾などで主食として食べられる品種。粒食とジャポニカ米は、韓半島と日本列島の食文化を理解する上で決定的な手がかりとなるもので、両地域の食文化が交流を行ったという最も重要な背景となるもの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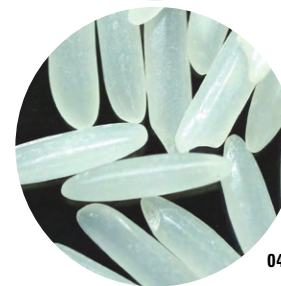
韓半島と日本列島は、粒食とジャポニカ米という二つの共通点に基づき、2300年間、様々な食文化の交流を行ってきた。本コラムでは、稲作の栽培法から茶碗に至るまで機能の観点から、米を巡る韓日の食文化交流史について考察する。



- 01 자포니카
- 02 요시노가리 유적공원
- 03 짧고 찰진 자포니카
- 04 길고 찰기가 적은 인디카

곡물 재배로 시작된 세계 문명

세계 4대 문명은 밀, 쌀, 옥수수 등의 곡물을 재배하면서 시작됐다. 밀과 옥수수를 재배한 문명권은 낱알을 분쇄해 이를 가공해서 먹는 분식粉食이 발달했고, 쌀을 재배한 문명권은 겉껍질을 벗긴 낱알 그대로를 익혀 먹는 입식粒食이 발달했다. 전 세계에는 10만 가지 이상의 쌀 품종이 있는데 형태와 찰기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길이가 길고 찰기가 적은 ‘인디카’와 길이가 짧고 찰진 ‘자포니카’다. 인디카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주식이고 자포니카는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주식이다. 입식과 자포니카는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식문화를 이해하는 결정적 단서이며 두 지역 간 식문화 교류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다.



벼농사법 전래로 시작된 교류

첫 번째 교류는 벼농사법의 전래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 사가현 간자키군에 있는 ‘요시노가리 유적공원’. 이곳에서는 탄화된 벼와 왕겨가 부착된 토기 등이 발굴되었다. 이를 통해 2,300년 전 고조선과 삼한시대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동하면서 청동기문명과 벼농사법을 일본에 전해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때부터 입식과 자포니카라는 한일 간 동일한 식문화의 시대가 열렸다.

이후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는 각 지역의 환경에 맞는 다양한 벼가 재배되었지만 입식과 자포니카라는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1592년 시작된 임진왜란 당시 20만에 육박하는 대군을 조선으로 보내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보급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곡창인 호남지역만 손에 넣으면 충분한 식량이 보급될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에 가로막혀 전략은 실패했고 왜군은 전쟁 기간 내내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조선총독부가 가장 먼저 수탈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쌀이었다. 이를 위해 토지조사사업과 농지정리사업을 벌였고 급기야는 한반도의 토착 품종 대신 생산량이 조금 더 나은 일본의 품종을 이식했다. 그렇게 한반도에서 생산된 쌀은 남해와 서해의 주요 항구를 통해 일본으로 갔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한국의 쌀 생산량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정부에서는 강력한 혼·분식장려운동을 펼쳤다. 평생을 입식으로 살아온 국민들에게 분식을 강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쌀은 여전히 부족했다. 생산량을 늘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쌀 생산량 증대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쌀 품종을 개량할 기술조차 없었다. 농촌진흥청 직원들을 필리핀에 있는 '국제미작연구소(IRRI)'로 보내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다. 마침내 1972년 기적의 벼씨라 불리는 '통일벼'가 탄생했다. 통일벼는 기존의 품종보다 생산량이

무려 40%나 높았다. 하지만 오로지 생산량 증가에만 목적을 두고 개발된 통일벼는 맛과 품질이 떨어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통일벼를 강제적으로 보급하고 장려했다. 이를 '정부미'라 불렀다. 형편이 좀 나은 국민들은 정부미 대신 민간에서 보급되는 품종을 선택했고 이를 '일반미'라 불렀다. 일반미의 대표 품종은 '아키바레秋晴'라는 일본 품종이었다. 이때 도입된 아키바레는 '추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재배되고 있다. 한편 1956년 일본 후쿠이현 농업시험장에서는 '고시히카리'라는 새로운 쌀 품종이 탄생한다. 이후 고시히카리는 무려 60년 이상 일본 최고 품종으로 군림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고시히카리는 한반도에 상륙한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밥맛에 있어 거의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고시히카리의 인기는 한국에서도 치솟았으며 고급 쌀 품종의 대명사가 되었다. 쌀 재배법을 전해준 한국로서는 여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었다. 2000년 이후 농촌진흥청에서는 해마다 '최고품질 품종'의 벼를 개발하고 있다.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적어도 밥맛에 있어서만큼은 고시히카리를 뛰어 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러한 최고품질 품종의 벼를 20여 종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한반도와 일본의 취사도구

단단한 쌀을 부드러운 겉 상태의 밥으로 익히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도구가 필요하다. 쌀을 그냥 찌면 단단한 고두밥이 되고, 물을 많이 넣고 끓

이면 죽이 된다. 자포니카 품종의 쌀이 가진 찰기와 경도를 살린, 부드럽게 씹히면서 찰진 밥을 얻기 위해서는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부의 강한 열을 견디는 무쇠 재질이어야 하고, 내부 공간이 깊고 넓어야 하며, 내부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막아 압력이 생길 수 있도록 뚜껑이 무거워야 한다. 이 조건을 두루 갖춘 도구가 바로 가마솥이다.

한반도의 가마솥이 가로 비율이 크고 무쇠 뚜껑인 반면, 일본의 가마솥은 세로 비율이 크고 나무 뚜껑이다. 이 차이 외에 두 나라의 가마솥은 구조적으로 바닥이 볼록해 부뚜막에 거치해야 하는 것 또한 같다. 가로, 세로의 비율이 다른 건 부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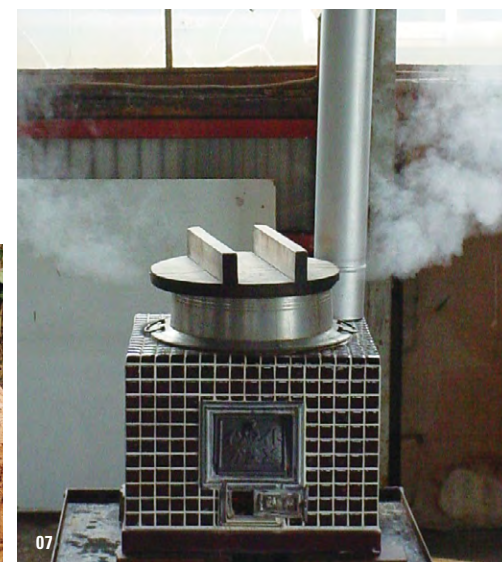
막의 역할 때문이다. 한반도는 부뚜막을 통해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했고 일본은 취사만 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부뚜막이 더 컸다. 당연히 가로 비율이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기원전 1세기부터 고려시대까지 한반도 역시 부뚜막은 난방보다는 취사가 위주였다. 따라서 오늘날 일본의 가마솥은 오히려 이 당시 한반도의 가마솥과 닮았다. 전라북도 익산시 미륵사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철제 솥은 오늘날 일본 가마솥과 천 년의 시간을 무색게 할 정도로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다. 쌀의 재배법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듯, 밥을 짓는 도구 역시 한반도에서 전래되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다.



05



06



07

05 고려시대 철제 솥_국립익산박물관 소장
06 한국의 가마솥과 부뚜막
07 일본의 가마솥과 부뚜막

1952년 일본 도시바에서 스위치만 넣으면 자동으로 밥을 짓는 전기밥솥이 개발되었다. 밥을 짓는 열원이 화력에서 전기에너지로 바뀐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 혁명적인 변화의 진정한 수혜자는 도시바가 아니라 조지루시라는 회사였다. 1974년 조지루시가 출시한 전기 보온밥솥은 공전의 히트를 치며 업계의 표준이 되었다. 회사명은 조지루시였지만 코끼리 모양의 로고 때문에 ‘코끼리밥솥’으로 더 알려졌다. 일본의 전기밥솥 시장을 석권한 코끼리밥솥은 한국의 부엌까지 점령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코끼리밥솥은 부잣집의 상징이자 혼수품 1호 목록에 올랐을 정도였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상황이 반전됐다. 초기의 전기밥솥은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밥을 짓는 편의성에 집중했다. 하지만 점차 더 좋은 밥맛을 내는 기술개발에 집중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좋은 밥맛’의 기준은 가마솥에 지은 밥이었다. 전기밥솥은 가마솥에서 밥이 되는 원리를 구현하는 쪽으로 개선되어 갔다. 한국의 전기밥솥 브랜드 ‘쿠쿠’는 한국과 일본 가마솥의 차이에 주목했다. 바로 뚜껑이었다. 한국은 본체와 동일한 무쇠인데 반해 일본은 나무 재질의 뚜껑을 사용했다. 나무가 아무리 무거워도 무쇠보다 무거울 수 없었다. 위에서 누르는 힘이 클수록 더 높은 압력이 생긴다. 이 원리를 이용해 쿠쿠는 기존 일본 전기밥솥보다 더 높은 압력으로 밥을 짓는 전기밥솥을 개발했다. 당시 일본의 전기밥솥이 평균 1.3기압으로 밥을 짓는데 반해 쿠쿠는 1.9기압으로 밥을 짓는 전기밥솥을 출시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쿠밥솥으로 지은 밥이 코끼리밥솥으로 지은 밥보다 더 부드럽고 찰지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코끼리밥솥의 신화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한국의 부엌은 쿠쿠가 점령하기 이르렀다. 가마솥이 일본에 전래된 지 천여 년 만에 이룬 쾌거이자 자존심의 회복이었다.

역사 속 식기 문화

임진왜란을 문화사적으로는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른다. 임진왜란 직전까지 전국 시대를 지나 온 일본은 각 지역의 맹주들 간 전쟁의 연속이었다. 영주와 사무라이가 이 피비린내 나는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취미가 다도였다. 차를 담는 사발 하나의 가격이 성 한 채 가격과 맛먹을 정도로 높게 거래될 정도였다. 당시 일본도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굽는 도기는 생산할 수 있었다. 하지만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는 자기를 생산할 기술은 없었다. 도기와 자기는 초기의 핸드폰과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기본 기능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물건이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는 동안 일본은 3만 명 이상의 조선 도공을 일본으로 끌고 갔다. 그 도공들에 의해 1616년 일본 사가현 아리타에서 일본 최초의 자기가 탄생한다. 초기에는 지배층의 사치품이자 최고의 수출품이었던 자기는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일본인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었다. ‘다완’으로 불리며 차를 담던 사발이 점차 밥과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기능하게 된다.

일본인의 생활에서 자기가 밥그릇이 된 것은 일종의 숙명이었다. 밥을 먹을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모두 사용했던 조선에서는 그릇을 들고 먹는 행위를 엄격히 금했다. ‘상놈들이나 그렇게 먹는다’며 천하게 여겼다. 도자기 밥그릇은 주로 양민이 사용했고 양반이나 임금은 열전도율이 높은 유기를 선호할 정도였다. 반대로 젓가락만 사용한 일본은 오히려 밥그릇을 들고 먹는 것이 원칙이었다. ‘밥그릇을 바닥에 놓고 먹는 것은 개나 고양이가 하는 짓’이라며 비하할 정도였다. 때문에 열전도율이 낮은 도자기 밥그릇은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었다. 열전도율이 높은 유기를 밥그릇으로 사용한다는 건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도자기를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문화는 임진왜란 이후 400여 년이 넘게 일본의 식문화가 지켜 온 변함없는 원칙이다.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어떤 음식점에서건 밥만큼은 반드시 도자기 그릇에 담아낸다. 도자기 종주국으로서 이것만큼은 아직 일본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쌀로 연결된 한반도와 일본

쌀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 한반도와 일본은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많은 영향을 끼친 데 반해, 근대 이후에는 일본이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명제처럼 한반도와 일본은 끊임없이 서로를 극복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덕분에 지금은 두 나라 모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 높은 식문화를 향유하고 있으며,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스테인리스나 멜라민 그릇에 담긴 밥을 보면 조상님들께 그저 송구할 따름이다.



마이크로리더 그리고 '우리' 속에 핀 꽃

언어 속에서 발견한 한일 두 나라의 문화적 특징

マイクロリーダー、そして「私たち」の中に咲く花

言語の中で発見された韓日両国の文化的特徴

글_ 이장욱 미술 작가
李將旭 아티스트



スマートフォンやTwitter、InstagramのようなSNSの普及により世界が急激に変化し、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方法と様子も変わりつつあるが、変わらないものも確かに存在する。言語は、私達が誰なのかを理解する座標であり、どんな言葉が流通しているか、どのように言葉を扱うかによってある一つの社会文化とレベルを計ることもできる。韓国と日本で留学生として、そしてアーティストとして両社会に蓄積された言葉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観察してきた。似ているようでまったく異なる二つの国の言語と使われ方を見て、その中に溶け込んでいる文化的特徴について追跡した。その結果、「マイクロリーダー」と「私たち」の言語の中で二つの特徴を見据え、両国を代表するアーティストを選別し、その仕事と考え方にスポットライトを当ててみる。



01 트위터 로고

#0 Intro; 트위터 말풍선 속 한국과 일본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같은 시기에 한국과 일본 사회에 던져진 SNS '트위터'는 상당히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었다. 아직 이 '140자의 말풍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표준이 굳어지지 않았을 때인 만큼, 사람들은 어려워했지만 마치 새로운 게임인 양 흥미를 가졌다. 그래서 초창기의 트위터는 한 사회를 읽는 리트머스지 역할을 했다. 한국 사람들은 인터넷 저편의 보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하며 팔로우하기에 열중했다. 짧게 허용된 자기소개란에 와인, 커피, 맨유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로 가득 채웠고, 특정 규모의 팔로워 수를 넘기면 자축하는 메시지도 눈에 띄었다. 맞팔로우를 해주지 않으면 금방 언팔로우를 하면서 맞팔을 계산기를 돌렸을 때 100%가 나오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관계의 확장에 집중했다.

일본 사회 역시 트위터에 열광했다. 서점엔 트위터 활용법에 대한 참고도서가 뻘뻘이 들어찼고, 심지어 당대 최고의 배우들을 섭외해 트위터 사용이 반영된 드라마가 발 빠르게 제작되기도 했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에게 주변 일본 친구들의 트위터를 쓰는 방식은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다. 한국 사람들과 달리 이들 계정 속 팔로워는 많아 봐야 스무 명 남짓이었다.

혹은 이보다 적거나. 이들은 단지 SNS라는 새로운 도구가 생겼을 뿐, 늘 그랬던 것처럼 정말 작은 단위의 친구들끼리 소통하기 위해 활용했다. 드라마 '스나 나레'(솔직하지 못해서)에서도 다섯 명의 젊은 남녀가 트위터를 계기로 만나게 되어, 서로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일본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그린 드라마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었다. 이때의 흥미로운 관찰을 겪고 나서부터 말과 커뮤니케이션은 나의 작품 활동에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1 이것과 꽃씨, 자기 위치를 지키는 말하기

일본의 도넛 가게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손님에게 계산해드리겠다는 말인 "오카이케오 사세때 이따다키마스"를 입에 붙도록 반복해가며 연습했다. 일본어 문법의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모라우 - 이따다쿠'를 활용한 높임말 표현인 이 말을 직역하면 "(당신에게) 계산을 시킬을 받겠다"라는 말이다. 또 일본 만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무라이나 야쿠자들은 상대방에게 '죽이겠다'라는 직접 표현인 "코로스"(殺す) 대신에 종종 "(네가) 죽는 것을 받겠다"라는 의미인 "신데 모라우"라고 말한다. 비슷한 문법 체

계를 가진 우리말에는 전혀 없는 신기한 표현이다. 정작 행동할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 가만히 있고, 행동을 통한 상대방의 변화를 역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말하여, 말하는 당사자의 능동적 의지를 완전히 거세시킨다. 그것이 비록 죽이는 행위와 같이 상대방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길 또는 추상적 지향점을 선택할 때 방향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이쪽'을 쓴다. 카페라테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고를 때처럼, 사물 혹은 대상을 선택할 때에는 보통 '이걸로 할게'라고 말하지, '이쪽으로 할게'라는 표현은 좀처럼 쓰지 않는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물건을 고르는 상황에서도 종종 '이것'을 뜻하는 고레(これ)보다 '이쪽'을 뜻하는 곳찌(こっち)를 쓴다. '이것'은 말하는 순간부터 이미 결과물에 도착해 있지만, '이쪽'을 뜻하는 일본어 곳찌(こっち)는 말하는 사람이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방향만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말속에서 이미 무게중심이 뒤로 물러나 있다. 말하는 사람이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 다르게 말하면 선불리 유추 혹은 미래를 가늠하는 말하기를 하지 않으며, 신중을 기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일본 문화를 얘기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메이와쿠'이다.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메이와쿠하지 않는 것, 즉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언어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것은 상대방과 나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거

칠고 투박한 타격에도 좀처럼 뚫리지 않는 두터운 방호벽이라기보다는 마치 얇고 투명한 막들이 포개진 유리장과 같다. 일본에서 관계란 이 섬세하고 유약한 공기의 벽을 깨지지 않게 아주 잘 관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본의 언어들은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유리장 너머의 상대방에 접속하는 열쇠와 같다.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만큼 과도한 높임말이나 세분화된 표현들은 이 유리장을 조심스럽게 한 꺼풀씩 열기 위해 쓰인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말끝이 가리키는 곳을 항상 귀담아들으려 하며, 말 너머의 상황이나 본심을 선불리 예단하지 않는다. 설령 예상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먼저 말로써 드러내기 전까지는 확실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습관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중심으로 시야를 굳이 멀리 두려 하지 않고, 공기의 벽 안으로 확보된 자신의 영역 안에서 보장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사회를 멀찌감치에서 조망해보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우키요에*처럼 보인다. 이 일본식 관화와 같이 섬세한 틀로 나누어진 각자의 처소에서 안정적으로 자신의 색을 낼 수 있다.

이런 일본 사회를 굳어지지 않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개념화에 특화된 '마이크로리더'이다. 이들은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철학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들은 노후화된 사회의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사이자, 구획정리의 전문가이다. 낡은 단어를 걷어내고 자기 손으로 붙인 이름을 사회에 공급해, 기존



02 가쓰시카 호쿠사이 작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우키요에)

의 틀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든다. 얼마 전까지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신조어 '소확행'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나,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철학으로 일본의 대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MUJI (무인양품)를 설계한 디자이너 하라 겐야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일본의 마이크로리더들이다. 이들로 인해 일본 사회가 보다 정교하고 다채롭게 변하고 있다.

#2 한국말과 문화 안의 '우리'

일본 사회가 '메이와쿠'를 의식하듯이, 한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바로 '우리'이다.

한국말 속 '우리'에 대한 흔적은 SNS나 유튜브에 능숙한 요즘 젊은 세대의 '힙'한 문화에서부터 쉽게 눈에 띈다.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는 '우리'를 찾아 잇는 대표적인 연결고리이다. 트렌드를 이끄는 '핵인싸'와 그들이 쓰는 '인싸어'는 '요즘 우리'에 올라타기 위한 필수 과목이다. 한때 유행했던 '그까이꺼 대충'이란 말 또한 적당히 뭉뚱그려서 한 맥락에 올려놓고 보는 '우리'의 속성을 잘 나타낸다. 비슷하지만 결이 다른 몇 가지 목소리를 한데 묶어 더 큰 카테고리의 '우리'에 흡수시키는 마법의 단어다. 다양한 것을 두루 포괄할 수 있는 단순하고 알기 쉬운 표어가 뚜렷하게 드러나며, '우리'를 한데 모으는 인플루언서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한다.

* 일본 에도시대 서민 계층 사이에서 유행했던 목판화이다. 주로 여인과 가부키 배우, 명소의 풍경 등 세속적인 주제를 담았으며, 유럽 인상주의 화가들을 중심으로 유행한 자포니즘(Japonisme)에 영향을 주었다.



03 월드컵과 붉은 악마
04 광화문 촛불 집회

일본말이 서로의 위치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 묻고 되묻는 모르는 척의 말하기에 능숙하다면, 한국말은 어떻게든 '우리'의 흐름에 올라타려고 하는 척의 말하기가 발달한다. 트위터의 예처럼 일종의 같은 색깔 말하기 게임이다. 같은 취향의 말을 꺼내거나, 같은 행동 양식을 공유하며 '우리'에 올라탄다. 전통적으로는 학연이나 지역 연고가 있고, 같은 시대정신을 공유한 세대나, 정치 성향도 '우리'로서 기능한다. 대중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음악, 인기 드라마와 같이 사회에 흐르는 유행 또한 '우리'를 엮는 적극적인 매개가 되었다. 일본 사회에서 보이는 오타쿠나 마니아층과 같은 '자기 집단'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성질은 조금 다르다. '우리'는 열기나 기류와 같다. 일정 기간을 강력하게 장악할 순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며 변한다. '우리'라는 강력한 구호 속에는 같은 목소리, 같은 행동 양식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한 배타적 그림자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보다 큰 '우리'

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 가장 큰 단위의 '우리'인 '우리나라'가 있다. 지금도 한국 사회에선 국민 배우, 국민 MC, 대국민 사과와 같은 말들이 버젓이 통용된다. '우리'의 장점이 강하게 발현된 사건들은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순간이었다. 민주화 운동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IMF 외환위기 때의 금 모으기 운동, 2002 월드컵의 붉은 악마,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 그리고 촛불 집회 등이 있다. 최근에 불어닥친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한국 사회에서는 참여적이고 희생적인 형태의 '우리'가 발동했다.

#3 마이크로리더 그리고 '우리' 속에 핀 꽃
이처럼 언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읽을 수 있는 좌표이다. 지금까지 어떤 말이 유통되는지 또 어떻게 말을 다루는지가 한 사회의 문화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언어 속에서 발견한 문화적 특

징을 기준으로 두 나라를 대표할 만한 미술 작가를 골라보겠다. 이를 통해 언어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단순히 문화의 지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는 수많은 모세혈관으로 얽혀서 같이 자라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미술을 대표할 만한 마이크로리더는 의외로 쉽게 떠오른다. 바로 일본의 대표적인 팝 아티스트인 무라카미 다카시다. 기이하지만 귀여운 모습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캔버스에 고스란히 옮겨 놓은 그의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저절로 밝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무라카미 다카시는 대학에서 일본화를 전공하였지만, 서구 미술을 그대로 따라가는 당시 일본 미술의 한계에 염증을 느꼈다. 미국으로 활

동 무대를 옮겨간 그는 오타쿠를 비롯한 일본식 하위문화에서 일본의 고유함을 찾으려 하였다. 2차원 만화 그림들과 '슈퍼 플랫'이라는 말로 '깊이와 두께가 없이 납작한 현대 문화의 경박함'을 비판했다. 이후 그의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들은 일본 전통미술과의 접목에서부터 루이비통과 같은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했다. 2005년 뉴욕에 위치한 '재팬 소사이어티'에서 그는 아주 중요한 전시회를 발표한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의 이름을 딴 <리틀 보이 : 폭발하는 일본의 서브컬처 아트전>이 바로 그것이었고, 이를 통해 그와 맥을 같이하는 다양한 일본의 아티스트들을 소개한다. 이제 '슈퍼 플랫'은 처음 그가 말하려던 비판의 메시지

05 현대미술가 무라카미 다카시





06 영화 '세상의 저편'

44

를 넘어, 그를 비롯한 일본식 하위문화의 창조적 환상을 담는 플랫폼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리고 2010년 마침내 그는 현대미술가로서 세 번째,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프랑스 베르사유 궁에 초대받아 개인전을 열게 된다. 무라카미 다카시는 만화를 비롯한 오타쿠 문화를 미술이라는 고급문화에 접목시켰다는 평을 듣지만, 정작 만화가나 오타쿠들에겐 환영받지 못했고, 미술계 안팎에서도 그의 상업적 성공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들이 있다. 하지만 유럽에 일본 문화의 붐을 일으키며 일본 미술을 서양 근대 미술사의 상단에 올려놓은 우키요에가 실은 에도시대의 하위문화였던 가부키 극의 브로마이드나 포장지 따위였던 것을 생각하면, 그가 주장했던 '슈퍼 플랫폼'은 생각보다 두텁고 깊이 있는 말이지 않을까.

'우리'의 특성을 담은 한국의 미술작가를 고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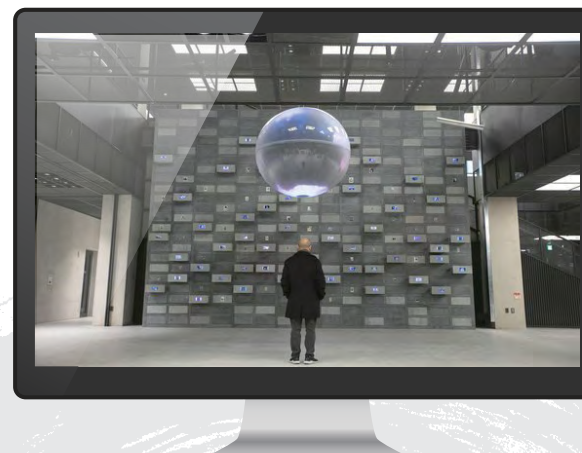
는 것은 일본의 경우와 달리 상당히 애를 먹었다. 우선 '우리'의 형태를 띤 작가 그룹으로 시야를 좁히기로 했다. 한국에는 팀으로 활동하는 수준 높은 작가 그룹이 제법 있다. 그중에서 다 음에 소개할 팀은 바로 10년 이상 꾸준히 파트너십을 보여준 문경원&전준호 아티스트 듀오이다. 이미 각자 두각을 드러내며 활약하던 두 미술 작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의기투합해 공동 작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작품 활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고민과 한계를 발판 삼아, "이 시대에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장기적 예술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미지로부터의 소식(News from Nowhere)>이라 이름 붙인 이 프로젝트는 미술 안팎의 여러 전문가 및 조언자를 찾아 함께 질문과 고민을 나누는 실천적 플랫폼의 형

태를 띠었다.

그리고 프로젝트 과정에서 겪은 시도와 생각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결과물로서 <세상의 저편(el Fin del Mundo)>이라는 제목의 두 개의 채널로 구성된 영화 작품을 제작했다. 환경 문제로 인류가 맞닥뜨린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배경으로 종말 전과 후의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더듬어보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다루었으며, 이를 영화배우 이정재, 임수정 씨가 연기했다. 작품은 2012년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현대미술 행사 '카셀 도큐멘타'에 초청되어 처음 선보였고, 같은 해 광주비엔날레의 최고상과 그해 첫 회로 열린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며, 국내외 미술계에서 큰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후에도 십여 년을 동일한 주제의 연장선에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며 베니스 비엔날레나 영국의 테이트 미술관 등에 후속작들이 소개되었다. 두 작가의 놀라운 점은 이렇게 거대하고 묵직한 프로젝트를 협업의 형태로 진행하면서도, 동시에 각자의 작품 활동 또한 이어가고 있다는

07 공공미술 '스테이션'



것이겠다. 두 개의 뚜렷한 주제가 치열한 다툼을 통해 완성되는 이들의 '우리'는 모두를 하나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심플한 구호의 모습은 아니다. 이들은 팀으로서 뚜렷한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기보다는, 디렉터 역을 자처하며 전체를 조화롭게 잇는 느슨한 연대를 조직한다. 그리고 더 큰 '우리'가 나뉘야 할 이야기의 장을 펼친다. 이들이 보여준 '우리'의 백미는 최근에 발표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스테이션(S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중일 세 나라를 대표하는 미술 작가들이 모여서 아시아의 화합과 미래를 상징하는 하나의 공공예술품을 창작하는 아주 실험적인 도전이다. 거장 장 샤오강과 야나기 유키노리가 각각 중국과 일본을 대표하여 참여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표가 바로 문경원&전준호였다.

세 팀이 각각 한 파트씩 맡아서 하나로 연결시키는 과정 중에 충돌이 발생했다. 일본과 중국 두 나라의 대표 작가들이 표현에 대한 고집에 있어서 물러섬이 없었다. 이때 한국의 두 작가가 놀라운 제안을 통해 공동작품을 완성시킨다. 이들은 조명과 사운드만을 활용해 양쪽 조형물을 한데 감싸 하나로 끌어안았다. 협업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보다 큰 '우리'에 접속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다부지게 꽉 채우거나 한없이 비울 수 있는 중에 어느 지점에 서야 할지를 아는 것인데,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호흡을 맞춰오며 자연스럽게 체득한 그들만의 '조율과 양보 그리고 배려'의 미덕이 아닐까. 이들의 수준 높은 '우리' 활용법이야말로 나라 안팎으로 완고함이 만연한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귀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45

2020년 포스트 코로나 특별사업

2020年ポストコロナ特別事業

글_ 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팀
釜山文化財団・文化遺産チーム

조선통신사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을 소개하는

조선통신사 온라인 역사 기행

- 1편 — 조선통신사 소개 편
「조선통신사 역사관 및 영가대」
- 2편 — 조선통신사 기록물 소개 편
「부산박물관 및 국립해양박물관」

출연진 **최태성** EBS 한국사 대표 강사
이원지 유튜브 <원지의 하루> 여행 유튜버



「2020年ポストコロナ特別事業」についてご紹介いたします。まず、朝鮮通信使と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に登録された記録を紹介する「朝鮮通信使オンライン歴史紀行」です。韓国最高の韓国史専門家のチェ・テソンとユーチューバーのウォンジのコラボ動画で、2020年7月中、朝鮮通信使YouTubeチャンネルからご確認いただけます。次は、「船に乗ろう」です。7月24日から26日までの3日間、釜山・龍湖湾（ヨンホマン）ダイヤモンドベイ船着き場で、朝鮮通信使船の乗船体験が楽しめます。最後は、「朝鮮通信使の楮紙人形展」です。7月7日から8月16日まで、朝鮮通信使歴史館において通信使の姿を再現した楮紙人形展が行われます。

조선통신사 온라인 역사 기행

대한민국 최고 한국사 전문가 최태성 선생님 × 유튜버 원지 컬래버레이션
조선통신사 온라인 역사 기행을 소개합니다.

▶ 조선통신사 온라인 역사 기행이란?

한국사 전문가 최태성, 여행 유튜버 이원지가 컬래버레이션한 조선통신사 및 유네스코 등재 조선통신사 기록물 교육 영상입니다.

1편 조선통신사 소개 (촬영지: 조선통신사 역사관, 영가대)

2편 조선통신사 기록물 소개 (촬영지: 부산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 어떻게 볼 수 있나요?

2020년 7월 중, 조선통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선통신사 유튜브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① QR코드 인식

QR코드 인식 방법 네이버 앱 → 검색창 옆 카메라 클릭 → QR코드 인식



조선통신사 유튜브
www.youtube.com/
user/tongsinsa

② 유튜브 검색

유튜브 사이트 접속(www.youtube.com) → 검색창에 'tongsinsa' 검색 → 구독 후 영상 감상



▶ 조선통신사 유튜브에서는 온라인 역사 기행 외에도 다른 영상들을 볼 수 있나요?

네,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조선통신사 축제 영상뿐만 아니라, 조선통신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영상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 더 다양한 구독자층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니 구독과 함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선통신사 뱃길 탐방 배 타러 가자

조선통신사 재현선을 타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조선통신사 재현선이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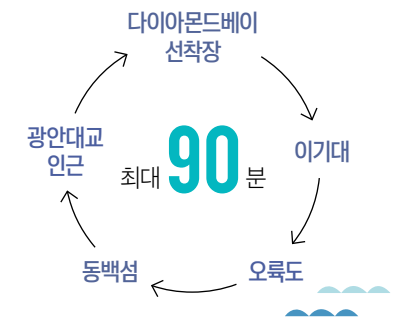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목포 소재)에서 옛 조선통신사선과 똑같은 실물 크기로 재현한 배입니다. 목포에서 부산까지 바다를 건너온 조선통신사 재현선을 타는 체험은 오직 부산 조선통신사 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는 축제 때가 아니어도 7월에 한 번 더 배를 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겼으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겠죠?

▶ 배 타러 가자 행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0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부산 용호만 다이아몬드베이 선착장에서 진행됩니다. 7월 24일은 13:30, 15:30 총 2회로 진행되며, 25~26일은 10:00, 13:30, 15:30 총 3회로 진행됩니다.

▶ 코스는 어떻게 되나요?

‘다이아몬드베이 선착장 → 이기대 → 오륙도 → 동백섬 → 광안대교 인근 → 다이아몬드베이 선착장’ 코스입니다. 승선 소요 시간은 최대 90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 행사에 다른 즐길 거리가 있나요?

승·하선 세레머니(전통악 연주), 버스킹 등 특별 공연, 어린이 복식체험, 조선통신사 학습 부스, 통신사선 모형 배 만들기, 부채 그리기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행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승선 접수는 마감되었으나, 7월 25일~26일 양일간 즐길 수 있는 부대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이아몬드 베이로 오시면 됩니다.

참가자 유의사항

- 고열(37.5℃),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 보유자 및 마스크 미착용자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1인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접수 시 인원 기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 탑승 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하여야 합니다.
- 유모차는 탑승 불가합니다.
- 문의: 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팀 (051-745-7272)

조선통신사 한지인형 전시

전시기간

2020년 7월 7일(화) ~ 8월 16일(일)

09:00 ~ 18:00 (17:30 마지막 입장) ※ 매주 월요일 휴관

전시장소

조선통신사 역사관 1층 전시실

한지인형으로 재현한
조선통신사 등성행렬도

※ 1711년 등성행렬도
총 인형 2192점, 말 158점 중
이번 전시에서는
인형 164점, 말 12점 전시

조선통신사 한지인형 전시

조선통신사의 모습을 똑같이 한지인형으로 재현한 조선통신사 인형 전시를 즐겨보세요.

▶ 조선통신사 한지인형은 누가 만들었나요?

소향한지예술창작협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소향한지예술창작협회(이하 소향회)는 한지인형을 만드는 문미순 선생님과 그 제자들로 구성이 된 순수예술단체입니다. 2004년에 결성되어 활동해 오다가 2005년 제1회 소향회素香會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소향한지예술창작협회로 부산광역시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성행렬도 작품에 참여한 회원은 문미순 선생님을 포함하여 9명(김도연, 김복선, 문의정, 신현미, 오은정, 유미복, 이명숙, 주득선)이었으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작업을 하여 인형 2192점, 말 158점을 완성했습니다.

▶ 등성행렬도란 무엇인가요?

숙종 37년의 통신사 행렬을 맞이하기 위하여 사전에 일본 측에서 그린 배치도로 도중, 귀로, 등성, 귀국 행렬이 있습니다. 특히 등성행렬도는 통신사 행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2,100여 명에 이르는 행렬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 전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0년 7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조선통신사 역사관에서 진행됩니다.

▶ 전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관일(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조선통신사 역사관에 오시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객 유의사항

- 고열(37.5℃),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 보유자 및 마스크 미착용자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 15명 이상 단체 방문 시 사전 문의 바랍니다.
- 문의: 조선통신사 역사관 (051-631-0858)



조선통신사 역사관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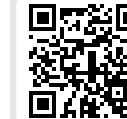
 홈페이지
www.tongsinsa.com



 인스타그램
joseon_tongsin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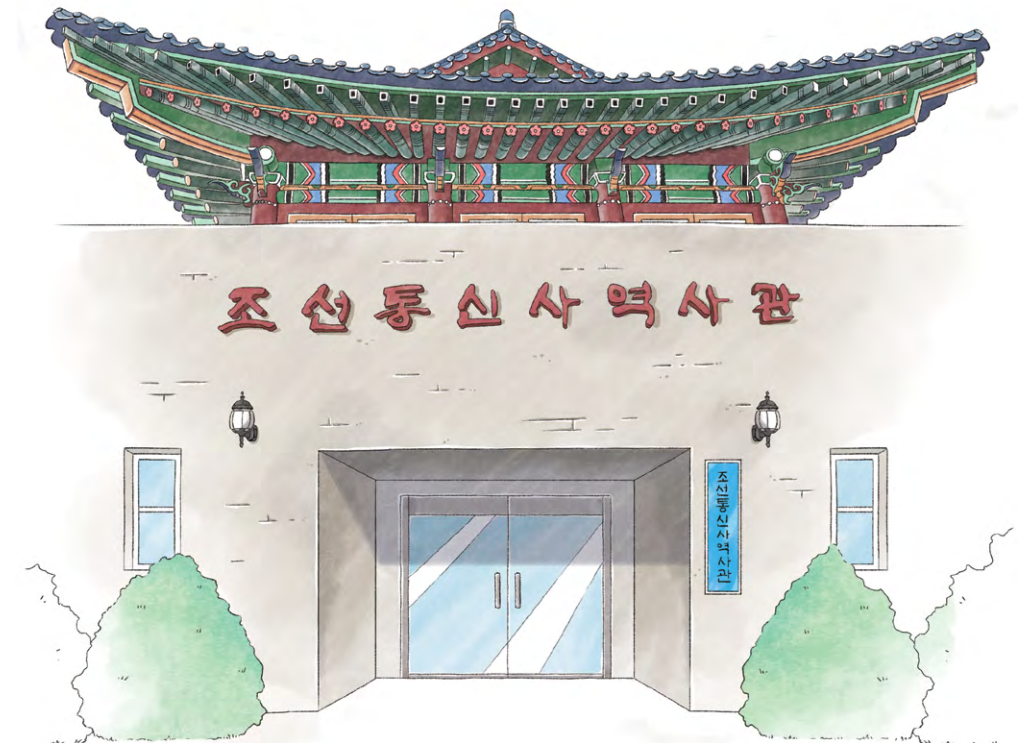
 페이스북
www.facebook.com/
tongsinsa



 유튜브
www.youtube.com/
user/tongsinsa



QR코드 인식 방법 네이버 앱 → 검색창 옆 카메라  클릭 → QR코드 인식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QR코드를 통해 <조선통신사 소식지>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아쉬웠던 점,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등 여러분의 의견을 매월 15일까지 작성해 주시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